

2004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 제70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대회를 다녀와서 -



김도미*

2004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가 “도서관: 교육과 발전의 도구”라는 주제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힐튼 호텔과 웨라톤 호텔에서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렸다.

IFLA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남미 국가에서 열린다는 것만으로도 남미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도서관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던 이번 대회에는 130여개국 약 3,000여명이 참가하였다. 2006년 WLIC 대회의 주최국인 우리나라는 WLIC2006서울대회 준비를 맡고 있는 신기남 위원장 및 위원 7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을 포함하여 총 61명의 협회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번 대회는 단순 참가의 수준을 넘어, 2006년을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기 위해 모든 대회절차와 행사진행상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조사하여 한다는 임무를 갖고 임하였다. 우리는 WLIC 대회 2년 전 개최국에게 부여되는 대회홍보를 위한 부스를 할당받아 내년 대회 개최국인 노르웨이의 오슬로 그리고 IFLA 본부와 함께 WLIC2006서울대회를 홍보하였다. 다음은 2004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전체 일정의 모습과 우리나라 대표단의 활동내용 등을 소개한다.

● 대회장소 및 주변 환경



▲ 등록데스크



▲ 안내데스크

2004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는 전문 컨벤션센터가 아닌 힐튼 호텔과 웨라톤 호텔 두 곳에서 열렸다. 문화 행사와 개/폐회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의 프로그램은 힐튼 호텔에서 진행되었고 몇 프로그램은 웨라톤 호텔에서도 진행되었다. 호텔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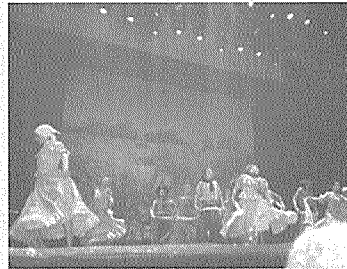
현관쪽이 아닌 안쪽 엘리베이터 앞에 마련된 등록부스와 도서관방문 및 관광정보 안내 데스크는 약 3,000명 정도의 등록인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좁았다. 대회 등록 첫날인 22일에 등록인파가 몰렸고 좁은 공간 때문에 등록을 위한 줄과 대회정보가 들어 있는 가방을 수령하는 줄 등이 크게 혼잡했고 도서

* 한국도서관협회 국제팀장, ja4dk@yahoo.co.kr

관방문을 확인하는 데스크는 등록 데스크를 한바퀴를 돌아야 보여 참가자들이 잠시 혼란을 겪었다.

이 대회를 위해 동원된 봉사인력은 모두 120여명이며, 그중 60명은 자원봉사자였고 60명은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된 도우미들이었다. 자원봉사를 담당했던 José Fuster Retali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아르헨티나의 공식 언어인 스페인어 외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 비용을 지불하고 도우미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영어와 스페인어 외 IFLA의 공식 언어들인 독어, 불어, 러시아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대회장 내부가 넓지 않아 인터넷 카페 그리고 각종 편의 시설 등을 찾기가 비교적 쉬워 적은 수의 자원봉사자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 같다. 두 대회장소인 힐튼과 웨라톤 사이에 셔틀버스가 운영되었으나 하루에 두세 번 정도였고 시간표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 개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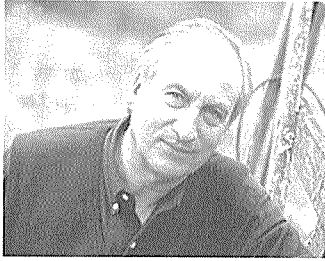
▲ 개회식 공연 중의 장면들

개회식은 23일 월요일 아침 9시, 콜론 오페라 하우스(Colon Opera House)에서 개최되었다. 이 콜론 오페라 하우스는 1908년에 건립된 공연장으로 건축 자체의 아름다움은 물론 비대칭적 음향시설로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문화적 심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 대표단 대부분은 일찍 출발하여 8시쯤 콜론 오페라 하우스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출입구에서부터 500m가 넘는 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극장 5층으로 올라갔으나 좌석 번호로 좌석을 찾기란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지정된 좌석을 무시하고 적당히 자리를 잡는 것으로 보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개최된 대회에서처럼 개회식은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개회식은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IFLA 회장 Kay Raseroka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개회사 도중 마이크가 잠깐씩 중단이 되어 사람들이 당황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회장은 침착하고 재치 있는 유머로 위기를 넘겨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이어서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기조연설이 있었다. 아르헨티나가 배출한 세계적인 작가인 토마스 마르티네즈(Tomás Eloy Martínez)는 '글로벌 시대의 책(The Book in Globalization Times)'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감명깊게 쏟아내었다.

1934년 아르헨티나의 북부지방 투쿠만(Tucuman)에서 태어난 토마스 마르티네즈씨는 문학을 전공하였다. 현재는 미국 뉴저지 럿거스 대학교의 석학교수 겸 라틴문학과와 과장으로 재직중이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많은 대학에서 특강과 초빙강의를 담당할 정도로 세계적인 문학자로 명성이 있다.

개회식 중 보여준 탱고 공연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아르헨티나 문화의 진수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한 멋진 공연이었다. 이 개회식 진행상 한가지 느낀 점은 2006년 대회 때는 개회식이 시작되기 전에 참가



▲ 토마스 마르티네즈

자들의 지루함이나 소란함을 방지하기 위한 스크린의 이용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면의 대형 화면에 한 두가지의 그림이나 거의 정지된 화면보다는 계속 변하는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의 활용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먼저 앉은 사람들이 스크린의 화면들을 감상하면서 다른 참가자들이 자리에 앉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평가된다. 개회식이나 폐회식과 같이 많은 참가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는 당연히 동시통역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개회식이 끝난 후 동시통역 헤드폰을 반납하는 창구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헤드폰이 작동되지 않음을 불평하는 모습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총회 I / 총회 II

8월 23일 11:00-12:30개회식에 이어 콜론 극장에서 계속된 총회 I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우선 총회 시작 전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의 정족수를 확인하고 바로 회장의 개회선언이 있었다. 회장 인사에 이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직위원회의 간단한 보고, 개표 확인자 지정, 안전 상정, 안전 채택 과정이 진행되었다. 사무총장의 전년도 베를린 대회의 회의록 낭독과 안전 상정 및 결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다. IFLA 본부의 회계(Treasurer)에 의해 제안된 회원 구분에 대한 안전과 2005년부터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 문제가 보고되고 제1차 총회는 종료되었다.

폐회식 후인 8월 27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에 힐튼호텔에서 열린 2차 총회에서는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가별 협회 외에 여러 협회를 위한 새로운 협회회원기준과 회원 회비 문제에 대한 상정 안전이 대부분 회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개막식 파티와 문화의 밤



▲ 개막식 리셉션 장면



▲ 문화의 밤 공연중 한장면

먼저 8월 24일 8시 골든센터(Golden Center)에서 열린 개막식 파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의 사서들이 WLIC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기금을 조성하는 취지의 "기금조성을 위한 티켓판매(Fundraising Raffle)"라는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으

로 진행되었다. 부페식으로 마련된 음식들은 참가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음식문화를 한껏 맛 볼 수 있게 풍성하게 준비되었다. 참가자들은 코믹한 판토마임과 흥겨운 밴드에 맞추어 춤도 추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도서관인들과 인사도 나누고 사진도 찍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8월 25일 오페라 극장에서 열린 문화의 밤 행사는 탱고와 남미의 여러 민속춤, 음악 등의 공연으로 약 2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한 작품 작품마다 감탄을 자아낸 이 행사를 보고 우리는 2006년에 어떠한 프로그램들로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많은 준비와 고민을 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 각종 회의 프로그램



▲ 회의진행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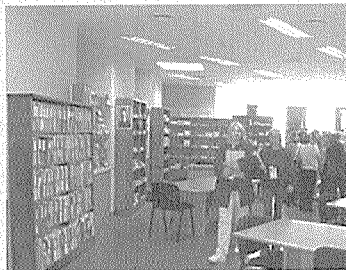
이번 2004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서는 47개 분과에서 주관한 약 200여개의 각종 회의가 진행되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참가해 다양한 주제의 새로운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특히, 남미에 대한 회의에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남미지역을 중심으로 수서와 장서개발을 위한 협력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 회의에는 남미 지역 도서관들의 현실과 실제 현장의 사례들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현재로서는 협력적 장서개발사업이 충분한 인식의 부족과 예산

및 지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점차 도서관들의 참여가 늘고 있으며 컨소시엄 구성 및 협력체 구성을 통한 대안을 마련중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별 연합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는 것도 발표하였다. 전반적으로 2004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의 회의 프로그램들은 무난히 잘 진행되었다.

● 도서관 방문



▲ 도서관방문안내 데스크



▲ "La Plata" 공공도서관의 내부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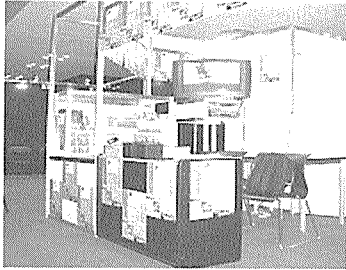
8월 26일에 진행된 도서관 방문은 아르헨티나의 국립도서관과 의회도서관을 포함하여 모두 23 개관이 참여하였으며 방문자들을 위해 간단한 다과를 제공한 도서관도 있었다. 자관 도서관의 정보를 담은 영문 안내책자 그리고 영어로 도서관을 안내할 수 있는 직

원 등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도서관들 중에는 규모가 크고 시설이 우수한 도서관도 있었지만 아직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도서관들도 있었다. "La Plata" 공공도서관처럼 도서등록을 등록대장에 수기로 작성하고, 직접 작성한 카드 목록함이 중앙로비에 비치되어 있어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도서관의 현황과 운영모습 등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볼 때, 여러 관중들이 고루 배치된 이번 도서관 방문은 아르헨티나의 도서관의 봉사 및 경영현황 등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우리 대표단의 활동

우리나라는 2006년 WLIC 개최국으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대회 동안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임무를 수행하였다.

• WLIC2006서울대회 홍보부스 운영



▲ WLIC2006서울대회 홍보부스 모습과 서울대회를 홍보하고 있는 위원들

이번 전시회에는 약 124개의 전시업체가 참가하였다. 우리는 2006서울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부스를 할당받아 대회관련 정보와 한국의 관광정보가 담긴 책자와 포스터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협찬으로 제작해 가져간 WLIC 서울대회 로고가 새겨진 열쇠고리와 북마크 등의 기념품을 나누어 주며 서울대회를 적극 홍보하였다. 전시회 시작 하루 전부터 부스공간을 청소하고 알맞은 곳에 장비를 배치하는 등 준비를 서둘렀다.



▲ WLIC2005오슬로대회 조직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신기남 위원장

8월 23일 오후 4시에 전시회가 시작된다고 하여 당일 오전 일찍부터 위원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부지런히 홍보책자와 포스터 그리고 기념품등을 보기 좋게 배치하였다. 4시에 개막하기로 한 전시장은 3시도 채 되기 전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는데 다행히 우리는 미리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으므로 다른 부스들에 비해 당황하지 않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열린 전시회에 약 2,500명 정도가 우리 부스를 다녀갔고 2006년 서울대회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꼭 참석하겠다는 말들을 남겨 일을 하는 우리로서는 힘이 솟는 느낌이었다. 전시회 첫날과 둘째 날은 아주 많은 참가자들이 부

스를 방문해 원래는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2명씩 조를 짜 오전, 오후로 나누어 일을 하기로 했으나, 9명 모두 부스에 서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할 만큼 우리부스는 발 딛을 틈 없이 성황을 이루었다. 위원들은 각국 협회 대표단 및 참가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서울대회 홍보책자를 나누어주며, 참가자들의 서울대회에 대한 문의에 대답해 주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 WLIC2006서울대회 준비상황 점검회의



▲ 점검회의 진행 모습

8월 24일 11시부터 1시간동안 힐튼 호텔 Alamo룸에서 WLIC2006서울대회 위원들과 IFLA 본부 그리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IFLA대회 공식 PCO(전문행사대행업체)로 선정된 Congrex Holland가 만나 서울대회의 준비상황을 검토하였다. 회의 안건으로는 첫째, WLIC2006서울대회의 진척 상황을 서로 보고하고 삼자간의 업무와 책임(tasks and responsibilities), 그리고 앞으로 남은 2년여 동안 진행되어야 할 대회 준비 일정표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우리측 참석자로는 신기남 위원장, 한상완 위원, 이경구 사무

처장, 이현주 위원 그리고 필자가 참석하였다. 그리고 IFLA 본부에서는 Claudia Lux 대회기획위원장, Josche Neven 공보담당관이, Congrex Holland에서는 WLIC 서울대회 담당자인 Annemiek Van Iersel이 참석하였다. 우리측에서는 현재 서울대회 위원들의 인선작업이 거의 끝나 10월까지의 명단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과 국내 도서관인들을 위한 WLIC2006서울대회 국내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10월 중으로 IFLA 소개와 WLIC2006서울대회정보 등을 담은 내용으로 단장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활동으로는 지난 6월 미국도서관협회 연차총회 전시회에서 WLIC2006서울대회를 위한 부스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고 당시 약 2,000명의 방문객이 홍보부스를 방문 하였으며, 지난 7월에 열린 중국도서관학회대회에도 참가하여 WLIC2006서울대회를 홍보하였다는 것 등을 설명하였다. Claudia Lux 대회기획위원장은 한국위원회 측의 빈틈없고 정확한 업무처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참석자들도 WLIC2006서울대회를 역대 대회 중 가장 알차고 성공적인 대회로 치루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 WLIC 차기 개최국들과 IFLA 본부와의 회의

IFLA 본부로부터는 현 회장인 Kay Raseroka, 차기 회장인 Alex Byrne, 사무총장 Ramachandran Rasu, 대회기획위원장 Claudia Lux, 사무국 공보관 Joshe Neven이 참석하였고 차기 개최국으로는 2005년의 노르웨이 오슬로, 2006 한국 서울, 2007 남아프리카 더반, 2008 캐나다 퀘벡의 위원회 위원장들 및 위원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WLIC 전문행사대행업체인 Congrex Holland의 Annemiek이 참석 하였다. 이 회의에서 차기 개최국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WLIC 대회를 위해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할 전문행사대행업체가 자국이 아닌, 본부가 소개한 헤이그에 있음으로 해서 겪고 있는, 그리고 겪을 불편함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 위원회 측을 포함한 차기 개최국들은 각국은 서로 다른 문화적 사회적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본부 측에 의해 정해진 대회 개최에 대한 획일적인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데 입을 모았다. 그리고 IFLA 본부측의 좀 더 융통성 있는 정책결정이 중요하다는 건의를 하였다.

• IFLA 도서관협회원 회의

8월 24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도서관협회회원들의 회의가 열렸다. 약 100여명의 각국 도서관



▲ 도서관 협회원 회의 모습

협회 대표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첫째, 국가협회 회원구조 변경에 대한 우편투표 결과. 둘째, 세계 도서관 협회 발전 프로그램. 셋째, 핵심 활동 지원 자금 조성. 넷째, 효율적인 IFLA 홍보계획. 그리고 다섯째, 효과적인 IFLA 활동을 위한 각 도서관 협회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2006 서울대회를 위해 준비한 홍보물과 기념품 등을 신기남 회장과 한상완 부회장 등이 각국 대표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의 참가와 협조를 부탁하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인사를 받았다.

● 폐회식



▲ 폐회식의 한 장면

폐회식은 8월 27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회장인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폐회식장은 개막식 때와는 달리 30분전부터 미리 개방하여 도착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각종 수상식에 이어 지난 5일 동안의 대회 모습을 약 10여 분정도 영상으로 보여주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뒤 부에노스아이레스 위원장인 Ana Maria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 내년 개최국인 노르웨이 오슬로 위원회에서 준비한 노르웨이 소개 영상물 등이 스크린에 음악과 함께 소개되었고 작은 공연과 위원장의 인사가 있었

다. 바이올린 연주 하나로 끝낸 오슬로의 공연은 소박한 느낌을 주었다. 이번 개/폐회식에서 느낀점은 모든 행사는 정해진 시간에 진행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회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시간의 엄수에 철저하지 않는 남미 쪽 나라의 국민성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5년 오슬로 대회시에 차기 개최국으로서 서울대회위원장의 인사말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공연 및 영상물 소개 등의 프로그램인 'Invitation to the WLIC 2006 Seoul' 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형 태극기와 2006서울대회 배너와 휘장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획기적인 동영상과 5~8분 정도의 소개 내용도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FLA 회장인 Kay Raseroka의 폐회사를 끝으로 공식적인 2004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는 대단위의 막을 내렸다. 